

몽골 타반 톨고이  
광산개발 사업자 선정 경과

1. 사업자 선정 경과

□ 2008년 12월, 몽골정부의 외국인 투자 결의안 승인

- 2008년 12월 몽골 정부는 타반 톨고이(tavan tolgoi) 찬키(Tsankhi) 블록 1광구 개발을 위해 몽골 정부 지분율을 51%이상으로 하는 국제 입찰 방식의 사업자 선정방식 승인

□ 2010년 7월, 광산 개발자 선정

-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, 포스코, LG상사, 대우인터내셔널, STX, 경남기업 등 7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일본, 러시아의 6개 기업과 함께 3국 합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제안서 제출
  - 한국, 러시아, 일본 외에도 중국, 일본, 인도, 브라질, 미국 등 10개 국가의 기업들이 15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
- 한-러-일 컨소시엄, 신화(중국)-미쓰이(일본) 컨소시엄, 피바디(미국), 발레(브라질), 아르셀로미탈(룩셈부르크), 엑스티라타(호주) 등 6개 투자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- 그러나 몽골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었던 러-몽 컨소시엄(36%)을 포함하여 신화-일본 컨소시엄(지분율 40%), 피바디(24%) 등 3개 업체를 최종 개발자로 선정

<그림 1>

몽골의 15개 전력 광산과 주요 광물



**\* 타반톨고이 광산 - 세계 최대 규모의 유연탄 광산**

- 타반 톨고이(Tavan Tolgoi) 광산은 석탄 매장량 1,750억 톤의 세계 제4위 규모의 석탄 광산으로, 몽골의 15개 전략 광산 중 하나임.
  - 전략광산이란 수요가 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지역경제·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으로서 연간 생산규모가 GDP 의 5% 이상인 광산을 지칭함.
- 타반 톨고이 광산은 수도인 울란바트르(Ulaanbaatar) 남쪽 5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노천 채탄으로 연간 100만 톤 가량을 채취하여 전량 중국으로 수출. 현재는 몽골 국영자산 관리회사 Erdenes MGL이 100% 지분을 소유

**□ 2011년 9월, 몽골 정부의 낮은 지분율 등을 이유로 개발자 선정안 부결**

- 2011년 9월 차히야 엘벡도르지(Tsakhagiin Elbegdorj)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위원회가 유연탄 광산개발자 선정안을 부결.
  - 당초결의안(51%)에 비해 몽골 측 지분규모(러-몽 컨소시엄 34%)가 너무 작은 점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컨소시엄이 최종 개발자로 포함된 점 등이 합의안 부결의 원인

## 2. 향후 전망

### □ 몽골 정부는 새로운 조건으로 재입찰을 추진할 전망

- 국가안전위원회가 국제 입찰을 진행한 타반톨고이 찬키 블록 1광구 개발안과 함께 몽골 기업이 독점 개발하려던 2광구 개발안에 대해서도 부결함에 따라 재입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됨.
- 개발자 선정안의 부결은 당초 러시아와 컨소시엄을 맺었던 한국과 일본의 공식 항의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져 재입찰은 국제 입찰 관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중심으로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- 하지만, 몽골 정부의 낮은 지분이 합의안 부결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재입찰 시 외국기업의 지분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초기 개발비, 철도부설비<sup>1)</sup> 및 광물 운송비를 부담할만한 지분확보가 중요

조사역 강수연(☎02-3779-5716)  
E-mail : sykang@koreaexim.go.kr

1) 몽골정부가 자국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타반톨고이 광산개발 프로젝트 입찰 조건에 인프라 건설을 포함